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롬 15:14-16]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라고 겸손하게 부른다. 그는 또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 즉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할 수 있는 자들임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즉 사도의 직무를 따라 담대하게 몇 마디를 썼다고 겸손하게 표현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이는 것을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서로 권면하고 또 권면을 듣고 받아야 할 것이다.

또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지만(벧전 2:5, 9)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은 특히 자신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며 이 영혼 구원의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 전도와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다.

[17-1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 또 그 목적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구원이다. 로마서 1: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니.”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며(롬 6:17) 참으로 믿은 자들은 성경의 교훈들에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된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과 함께 활동하신다. 기적들은 교회 안에서 오래 전에 사라졌을지라도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적 변화는 교회 역사상 항상 있었다. 교회 확장의 역사는 이런 내면적 기적들의 역사이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죄인들이 거듭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

[19-21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일루리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북서쪽 해안 지방이며 그 서쪽 바다 건너편에 로마가 있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전도 활동을 시작했던 바울은 소아시아는 물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또 그 지방의 북서쪽 해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던 것이다. 바울은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역은 피하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 개척 전도에 힘썼다. 바울의 전도의 열심과 개척 정신은 오늘날 모든 전도자들에게 본이 된다. 교회는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특히 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들에 전도자들을 파송해야 할 것이다.

[22-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내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리라(전통본문)).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심을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소원하였지만, 그의 소원은 여러 번 좌절되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번 길이 막힐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성경적이고 우리의 이성의 건전한 판단에 따른 것일진대,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의 처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자기의 일을 등한히 하며 다른 큰 일만을 꿈꾸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이 맡겨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미래의 전도 계획은 로마를 거쳐 당시의 세계의 서쪽 끝인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사명의 계획이었다. 그는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힘을 얻은 후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성도의 교제는 전도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25-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거든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구제의 일도 중요하였다. 그것은 선한 열매가 되기 때문이었다. 성도의 구제헌금은 그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 우리가 참으로 주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의 고백뿐 아니라, 시간과 수고와 돈도 포함할 것이다. 마케도나와 아가야 교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의 가난한 성도들 돕기를 원했다. 실상,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 교회에 빛진 자이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 구원의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들이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구원의 가치는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28-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전통본문)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마케도나와 아가야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의 열매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확증한 후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했다. 그때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충만한 복, 곧 말씀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였다.

[30-3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이다. 아멘.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를 권면하였다. 그는 그들이 그와 힘을 같이하여 그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합심 기도는 힘이 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엡 6:19; 살전 5:25).

바울이 요청한 기도는 세 가지이었다. 첫째는 유대의 순종치 않는 자들로부터 구원해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 이유가 있다. 둘째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받음직하게 되기를 구하라는 것이다. 구제는 구제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이다. 로마로 가기를 원한 바울의 소원은 몇 번 좌절되었으나, 그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그들과 교제하며 며칠 편히 쉬기를 원하였다.

바울은 끝으로 평안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하나님이며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16에서도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지이다”라고 말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교우를 다 형제로 여기며 겸손히 처신하고 겸손히 남을 권면해야 하고(마 20:27-28; 23:8-12) 남의 믿음과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후 1:24).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영혼 구원이나 성화나 교회 건립의 일이 다 그러하다.

셋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열심으로 일해야 한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전도하는 개척 정신으로 일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음을 예상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우리의 소원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충성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며 구제하는 일도 힘써야 한다. 구제와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다. 그것은 전도만큼이나 중요하다.

여섯째로,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므로 기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모세의 노래

[출 15:1]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한 이유는 그가 심히 높으시고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말과 그 탄 자’는 단수명사로 애굽 왕 바로를 가리키는 것 같다. 물론, 바로 외에 그의 장관들의 병거들도 있었고 그들도 다 바다에 삼키웠다.

[2절] 여호와(야흐)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시고 최고의 가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즉 참된 신앙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로 계대(繼代)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전사(戰士))시니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파하신 전사(戰士)이시다. 그의 이름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다(출 3:14).

[4-5절] 그가 바로의 병거들과 그 군대를 바다에 . . .

바로의 병거들(원문)과 장관들이 바다에서 죽은 것은, 우연이거나 재수가 없어서거나 이스라엘 자손과의 전투에서 패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본문은 그 바다를 ‘홍해’라고 불렀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애굽 북동쪽 끝, 지중해의 한 해변이 아니고, ‘홍해’라고 불리는 애굽 동쪽의 큰 바다의 북단, 즉 수에즈만 북쪽의 어느 지점이었다고 보인다.

[6-10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었다. 그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위엄으로 그를 거스르는 자들, 즉 그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엮으셨다. 그는 진노를 발하셨고 그의 진노는 그들을 겨같이 사르셨다. 큰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건넜지만, 바다는 바로와 애굽 병사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결에 납같이 잠겼다.

[11-12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무사히 건내게 하시고 대적자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밝히 증거되었다.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 모세는 “주께서 오른손(능력의 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라고 말한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표현은 특이하다. 실제로는 땅이 아니고 바다가 그들을 삼켰지만, 바다가 땅 위에 물이 고인 곳이며 넓게는 땅에 포함된다. 는 뜻에서, 즉 하늘과 땅 곧 천지(天地)라는 말 속에 우주만물이 다 포함된다. 는 뜻에서, 표현된 것 같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救贖)하신 백성을 은혜로 . . .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속(救贖)하셨고 그의 자비로 인도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으로 그들을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다.

[14-16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홍해 사건의 소문은 애굽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 널리 퍼질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과 용사들 곧 블레셋 거민들, 에돔 방백들, 모압의 영웅들, 가나안 거민들 등이 다 듣고 두려워 떨고 낙담할 것이다. 40년 후,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 ‘주의 사신 백성’이라고 표현했다. 신약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다.

[17-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 .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그의 기업의 산, 그의 예비하신 처소, 그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함께

‘바로’의 말이라는 원어는 단수명사이다. 바로 자신

이 그대에 홍해에 빠져 죽었다고 보인다. 바로의 말과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했다.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라는 표현은 네 번째 나왔다(출 14:16, 22, 29; 15:19). 이렇게 반복해서 증거된 대로, 홍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기적의 사건이었다.

[20-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여선지자

구약시대의 미리암이나 신약시대의 진도자 빌립의 네 딸과 같이 여자가 선지자인 경우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 신약시대에 사도나 장로와 집사는 남자들 중에서 택했다.

[22-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광야는 시내 반도의 북서쪽, 홍해 건너편 애굽 가까이 있는 광야였다고 본다(창 20:1; 25:18; 삼상 15:7).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행하면서 물을 얻지 못하여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물이 있는 한 곳에 이르렀지만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그 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마르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다. 인생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다. 3일 전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이제 물이 없거나 물이 써서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쁨도, 물이 없거나 물이 쓴 고통도 주셨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일들이었다.

[24-25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투덜거리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다. ‘원망하다’는 원어(룬)는 ‘투덜거리다, 웅성대다’는 뜻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다섯 번(출 15:24; 16:2, 7, 8; 17:3), 민수기에 여덟 번 사용되었다(민 14:2, 27, 27, 29, 36; 16:11, 41; 17:5). 고난 중에 원망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공통적 연약성이다. 원망과 불평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난의 현실을 참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울 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물맛

이 달아졌다. 그것은 나무 자체의 효능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 기적이었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의 말을 청종하고(삿모아 티쉬마)[진심으로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계명들과 율례들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건강과 치료를 약속하셨다. 이것은 잠언 3:7-8의 말씀과 동일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건강, 치료)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큰 의사이시다. 몸의 건강과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오아시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간 목마름도 주셨지만 시원한 물도 주셨고, 얼마간 고난도 주셨지만 기쁨과 평안도 주셨다.

출애굽기 15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홍해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 사건의 체험에 근거했다. 우리는 홍해의 사건의 역사성을 비롯해 모든 성경 내용의 진실성을 믿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들인 바로와 그 장관들을 멸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기업 의 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의 천국을 예표한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이 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의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평과 원망이나 낙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온다. 무슨 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건강과 치료를 약속하신 것이다. 계명 순종은 건강뿐 아니라, 모든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길이다.